

고하선생 탄신 123주년 추모식

추모사

오늘은 고하선생님의 123주년 탄신일입니다.

금년에도 선생님을 사모(思慕)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앞에 모여 존경하는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回想)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년 12월에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되어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전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음은 물론 국제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 글로벌 경제관리의 승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7대 무역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 세계인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향상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하선생님

금년은 세계경제의 불황과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중양국의 군사경쟁, 일본정국의 극심한 우경화 경향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전쟁위협 등으로 우리나라는 국제분쟁의 와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애국, 애족정신을 잊지 않고 전 국민이 하나되어 대처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하선생님

일제 암흑기에도 선생님께서 동아일보 총수(總帥)로서 인촌(仁村)김성수(金性洙)선생님과 같이 장차 새나라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셨던 문맹퇴치운동(文盲退治運動)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 단군성적(檀君聖蹟)조사,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李忠武公遺跡保存運動) 등을 전개하셨음을 볼 때 우리가 1960년대 및 70년대에 거국적으로 추진하였던 "새마을운동"의 뿌리를 연상하게 되어 일제 암흑기에도 나라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신 선생님의 선견(先見)과 선각(先覺)과 선두(先頭) 그리고 역사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은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사실을 몇 가지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아끼시고 정열(情熱)을 쏟으셨던 동아일보는 김재호(金載昊) 사장 체제로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즉 금년 4월로서 창간 93주년을 맞는 동아일보는 2011년 12월에 개국한 "채널A"와 함께 신문, 방송, 출판, 인터넷, 모바일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서 크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10.17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敎育館)의 설치와 필요한 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고하선생님이 서거하실 때까지 거쳐하셨던 서울 원서동 고택 집터에 "송진우 집터"라는 표석을 설치하였으며,

창경궁 앞길과 원서동 고택 입구에는 "애국지사 송진우 집터" 라는 이정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오는 6월중에 관내에 사셨던 고하선생님 등 역사인물들의 후손을 초청하여 선현의 공적을 기리고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존경하는 동아일보 배인준(裴仁俊) 주필께서 선생님의 약전(略傳)을 봉독해 올렸으며, 윤두섭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과 박유철 광복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연(沈之淵)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고하의 사회관과 경제관"을 제목으로 추모강연(追慕講演)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의 1차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ICC재판관 절대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로 재선출 되어 계속 재판소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직까지 겸직하면서 인류사회의 정의와 질서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자라나는 후진들에 대한 복지증진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는 분명한 중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송박사의 효심은 대단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하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진운에 따라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지표를 향하여 굳게 뭉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우리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굳은 신념과 도전정신, 독립정신, 애국정신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하선생님 저희들은 숭고하신 선생님의 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복지국가로 가꿔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